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시세계의 한 국면*

-자아와 공간을 중심으로-

김승룡**

<차례>

1. 들어가면서: 퇴계의 기억
2. 산빛을 닮은 지식인: 청수(淸瘦)와 환홀(還笏)
3. 세속적 공간의 경계적 재구성: 도원(道院)과 한(閑)
4. 자재로운 자아의 공간 창조: 관포당(灌圃堂)
5. 나오면서: 남은 과제들

<국문초록>

본고는 어득강(魚得江, 성종1, 1470~명종5, 1550. 향년 81세, 자는 자유子游, 호는 혼돈산인混沌山人, 관포灌圃)의 한시가 지닌 국면 가운데 자아를 드러내는 공간을 주목하여 그의 시를 읽어보고자 한다. 이황은 그의 사람됨으로 망기(忘機)·해학(諧謔)·연하락(煙霞樂)을 지적하고, 시에 있어서 세상의 속티가 없는 순박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득강의 시집을 편차 짓고 발문을 썼으며 간행까지 사림의 책임으로 자임하였다. 그의 안내에 따라 살펴본 어득강은 산빛을 닮은 청수(淸瘦)한 지식인으로서, 벼슬을 상징하는 홀(笏)을 되돌려주고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을 피하였다. 그러나 속세를 피하여 살 수 없었던 그는, 세속적 공간에 그것을 넘어서는 이상을 담아 경계적 공간이 ‘도원(道院)’을 구성한다. ‘도원’에는 속세의 기반과 탈속의 욕망이 착종되어 있는 ‘한(閑)’의 공간이었다. 나아가 자신의 최종 우거처였던 혼돈촌에 ‘관포당(灌圃堂)’을 통해 욕망으로부터 자재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이곳에서 어떤 세상의 호명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의 자의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차후 이황을 비롯한 당대 사람이 어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득강에 대하여 보낸 경의를 재점검하여, 어득강 한시의 전모와 미적특징을 확인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주제어 어득강(魚得江), 도원(道院), 청수(淸瘦), 관포당(灌圃堂). 환홀(還笏), 한(閑)

1. 들어가면서: 퇴계의 기억

본고는 어득강(魚得江, 성종1, 1470~명종5, 1550. 향년 81세, 자는 자유子游, 호는 혼돈산인混沌山人, 관포灌圃)의 한시가 지닌 국면 가운데 자의식, 자아상, 지식인으로서의 모습 등을 드러내는 공간을 주목하여 그의 시를 읽어보고자 한다.¹⁾ 어득강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선배 세대로서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와 함께 이황이 존경했던 사람이다. 일견 하기에 이황의 도학적 시풍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황의 경외는 뜻밖의 사실로 여겨진다. 게다가 이황은 어득강을 위하여 문집에 발문까지 써 주었다. 그 경외가 혹여 사적인 친분에 의해서라고 한껏 양보하더라도 이황의 위치가 조선 사회에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쉽게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득강의 시세계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황의 발문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 글은 어득강의 한시를 이해하는 단초이면서 털어버려야 할 각질(殼質)이기도 하다.

1) 어득강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인데, 최석기, 『관포집 해제』, 『남명학연구』6,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6; 최재남, 『어득강의 쌍계팔영과 그 차운시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1, 경남지역문학회, 1997; 최재남, 『어득강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일고』, 『한국한시연구』11, 2003 등이 참조할 만하다. 그 외 고소설 <어득강전>에 대한 연구가 있다. 어득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의 해학적 성격을 극대화한 것으로서, 방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있겠다. 『관포시집』은 한국문집총간 속1집(연세대소장본)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역 함종세고』(2001)에도 들어있다. 본고에서 어득강에 대한 생평 및 특징에 대한 서술은 위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고금을 통하여 전하는 시집은 많지만 그 중에서 뛰어나 세상을 울린 것은 시대마다 몇 사람에게 불과하고 여기에서 치진 것은 그 득실의 비평을 면치 못한다. 대개 시는 잘되었지만 취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사람은 훌륭하나 시는 형편없는 것이 있으니, 이 같은 걸 과연 세상에 전할 수 있겠는가? 그 시를 읽고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구해 사모할 수 있다면 이 같은 것은 과연 세상에 전하는 데 어찌 부족함이 있으리요? 관포 어 선생은 태어나면 서부터 세속에 벗어난 인품을 가지면서 난세에도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치세에도 출세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나아가서 옥당 금마가 되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굽혀져 하찮은 자리로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음의 망기와 동방삭의 해학에다 자연을 즐기는 습관으로 끝까지 그 즐거움을 누렸으니,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 시에 있어서는 특히 율시에 능했고 절구에 이따금 두소릉의 절박(節拍)이 있었다. 또 그의 시는 기고능려(奇古凌厲)하고 호건돈좌(豪健頓挫)하여 세속의 비란내나 먼지의 기운이 없었으니 그 시의 격이 또 어떠한가? …… 아아, 사람이나 시에 있어서 권하지 못할 것을 권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는 병이 될 뿐이요, 전할만 것을 전하지 않음은 후대 사람의 책임이다. 이 시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전부터 공론이 있었고 이번에 감사공이 이 일을 한 것은 사람의 책임을 벗어나야겠다는 것을 알았던 때문이다. 선생은 함중 사람으로서 고성 혼돈촌에 우거하며 자호를 관포장인이라고 하였다. 운운.”²⁾

2) 『灌圃集』, 跋, “古今詩集之傳多矣, 其間傑然而鳴世者, 代不過數人. 其下於此者, 或不免於得失之評焉. 蓋有詩工而於人無取者, 有人優而於詩未至者, 若是者果可以傳世乎? 讀其詩而可喜, 求其人而可慕, 若是者果不足以傳世乎? 灌圃魚先生, 生有拔俗之標, 亂不全退, 治不求進, 進之以玉堂金馬非喜也; 屈之以主縣米鹽非恥也. 漢陰之忘機; 東方之詼諧, 有山水煙霞之癖, 而從享其樂, 其爲人何如耶? 於詩於詩尤長於律, 而絕句往往有杜少陵之節拍, 奇古凌厲, 豪健頓挫, 無世俗腥腐塵埃之氣, 其爲詩又何如耶 …… 噫, 人與詩不足傳而傳者, 適爲其人之病也; 可傳而莫之傳者, 爲後來士林之策也. 是集之不可不傳, 故自有公論, 而監司公(吳謙)之爲是舉, 其知免於士林之策矣. 先生咸從人也, 寓居於固城之混沌村, 自號灌圃丈人云.”

이황의 발언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어득강의 사람됨과 시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어득강은 사람됨과 시가 한결같은 사람이다. 세속을 벗어난 듯한 인품과 속티 없는 시가 괴리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득강은 난세라 하여 굳이 몸을 피하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치세라 하여 애써 벼슬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청요직을 지내든지 외직을 지내든지 그에 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인품을 지녔기에 그의 시 역시 속티가 없었다고 하였다. 시에 드러나는 ‘속티(世俗腥塵埃之氣)’의 구체적인 의미가 분명하진 않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는 집착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도가적 풍모가 시에 나타나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시와 사람의 일치를 거론하는 이 부분은 이른바 ‘풍격’에 대한 논의로서, 시를 시로만 보지 말도록 요구한다. 곧 시는 사람됨의 외현(外現)으로서 그 근저에 놓인 ‘사람됨’을 읽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황이 제시한 어득강의 사람됨 세 가지, 즉 망기(忘機)·해학(諧謔)·연하락(煙霞樂)은 주목된다. 차후 그의 시에서 기심(機心)없는 정직함, 유머 있는 밝은 마음, 그리고 자연과의 합일을 꾀하는 여유로움 등 이 세 가지가 어떤 모습으로 시세계를 구성할는지 추적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황은 어득강에게서 ‘시’ 자체 보다는 ‘사람됨’에 방점을 두어서 ‘자기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다음으로, 어득강의 시세계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황은 어득강의 시를 읽는데 주요한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첫째, 율시가 뛰어나다는 점, 둘째, 절구 가운데 두보의 절박(節拍)이 있는 시도 있다는 점. 셋째, 풍격이 기고능려(奇古凌厲)하고 호건돈좌(豪健頓挫)하며 속티가 없다는 점이다. 첫째는 어득강 한시의 장치가 율시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뜻이고, 둘째는 절구에 두보 시가 갖고 있는 침울돈좌(沈鬱頓挫)와 같은 시적 파랑(波浪)과 리듬을 가진 시가 있다는 뜻이며, 셋째는 그 시의 풍격이 ‘기고능

려' 즉, 시가 내용적으로 상상력이 참신하고 상투적 감각에 머물지 않는, 그러면서 속도감을 갖고 진행되고, '호건돈좌', 즉 기세가 거침없이 파란(波瀾)을 만들면서 굴곡진 흐름을 갖고 있음을 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두소릉의 절박'과 관련 있는 언급이다. 이를 통해 구현된 시는 세상의 속티가 없는 순박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어득강의 시를 접근해 들어갈 때 형식과 풍격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위 지적 못지않게 이황은 어득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또 다른 단서를 물어놓았다. 하나는 문집의 간행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어득강의 별호와 관련해서이다. 이황은 어득강의 문집을 엮어 간행하는 것은 '사림의 책임'으로서 '공론'이 있었다고 하였다. 즉 『관포시집』의 간행은 사적 차원의 현양이 아니라, 사림이라는 '집단 지성'의 주체적인 논의에 의한 안배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조선 중기 지성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황의 앞세대에 농암 이현보와 관포 어득강이 사람됨으로서 표상되는 지점이, 그저 일시적인 논의가 아니라 당대 집단 지성들의 논의 결과였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황이 그 점점에서 있기는 하지만, 어득강의 비중을 일깨워주는 언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성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어득강의 최종 우거처의 이름은 다소 생뚱맞다. '혼돈(混沌)'. 이 말은 『장자』에 나오는 '혼돈'에서 유래한다. 본래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였던 '그'는 남을 잘 도와주었던 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 그에게 구멍이 없는 것을 보고,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구멍을 뚫어주었다. '그'는 결국 남들이 뚫어준 구멍으로 인해 본래의 면목을 잃고 생명을 잃고 말았다. '구멍'이란 '호명(呼名)'이다. 그 자체로 온전했던 존재가, 외부의 '호명'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끝내 자신의 생명력이 고갈되어 스러졌다는 이야기이다. 그곳에 삶의 귀착처를 마련한 어득강의 속심에는 '호

명'으로 상징되는 세상으로부터 일탈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도학적 프레임으로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혼돈'을, 또한 그런 취향의 인물을 위해 아낌없이 발문을 써주었던 이황의 마음이 궁금해진다. 어쩌면 이황을 그동안 차가운 도학적 인물로만 여겼던 데 이런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본래 도학이 가진 학문적 엄밀함과 인간적 풍성함을 곡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황의 발언을 통하여 어득강의 시를 탐사할 방향을 대략 확보하게 되었다. 시를 읽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다. 특히 아직 작가론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어득강의 경우, 그의 생평에 대한 재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고 역시 이 문제의식 하에 조선왕조실록 및 각종 필기류, 문집류에 보이는 관포에 대한 기억들을 모아 간보(簡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그의 한시의 주제적 국면은 향학 교육의 실천, 지방 풍물의 구체적 일상화, 자연공간의 내면화, 해학과 정감의 인간에 표현 등을 포착하여 일단의 스케치를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 속에 나타나는 의상(意象)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표면적 소재 차원의 이해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집필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서술 방향을 관포의 자의식, 자이상,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 특히 공간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어떤 사람됨을 시 속에 오롯하게 구현하고 있었던가를 점검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 논의는 본격적인 어득강 한시 연구를 위한 서설에 해당하게 될는지 모르겠다.³⁾

또 하나 어득강의 한시를 마주하면서 사상적 범주로 그를 가둬두지 않으려는 전략을 쓰도록 한다. 어득강은 시인이다. 그는 유학을 공부하였지

3) 어득강의 한시에 대하여 최재남의 논의에 많은 빛을 졌다. 그는 어득강의 한시를 '溪山과 강호에서의 삶'과 '사람 지향의 의지와 廉退의 절개 및 실천'으로 요약한다.

만 유가적 상상력 안에 자신을 가둬두지 않았다. 그의 시어에 자주 등장하는 ‘혼돈(混沌)’이나 ‘도원(道院)’이란 술어에서 보듯이 도가적 상상력으로 자신의 공간을 재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유가적 소양과 도가적 상상력과 표현, 이념적 프레임으로는 화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시’라는 감성적 영역에서는 어우러질 수 있다. 그래서 학문과 이념의 각도에서 어득강의 시를 읽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한시 자체에 즉하여, 그 시가 갖고 있는 형상들, 그들이 지어내는 질감, 구조적 층차, 언어적 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가 거꾸로 그의 학문적 성격이나 사상적 특징을 구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시도 또한 어득강을 어느 한 면에 가둬두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를 일이다. 끝으로 우리는 그의 시를 모두 읽어낼 수는 없다. 대표적인 시 몇 수를 골라 읽은 뒤, 그것을 종합하면서 어득강 시의 한 국면을 조망하고자 한다.

2. 산빛을 닮은 지식인: 청수(淸瘦)와 환홀(還笏)

어득강의 시를 접하면서 든 생각은 과연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황이 유례없이 칭찬하였을 것인가? 실제 초상화를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시만을 보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그는 무엇을 닮고 싶었을까? 『주역』에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하고, 같은 기는 서로 찾는다(同聲相應, 同氣相求)”라고 하였듯이, 향유 비슷한 기운을 가진 존재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어득강의 시에 유달리 많이 나타나는 의상이나 의경은 그가 끌어당기든, 그리고 끌려갔든, 둘 사이의 관계는 긴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시가 다음 시였다.

처마 사이로 산빛을 마주하니 여위었고
 창으로 눈 덮힌 산을 머금으니 차가와라.
 창백하기는 내가 더욱 심하거니와
 담담하게 날마다 서로 본다오.
 軒對山顏瘦 窓含雪嶺寒
 清羸吾更甚 冷淡日相看⁴⁾

1502년(연산8, 33세), 어득강은 산음현감이 되었다. 이후 6년간 재직하게 되는데, 이 때 <산음(山陰十二詠)>을 읊는다. 위 시는 그 가운데 제 10수이다. ‘유산(楡山)’은 산음의 남산으로서, 이 남쪽에 진주가 있고 단속사(斷俗寺)가 가까이 있다.

1구의 ‘헌(軒)’과 2구의 ‘창(窓)’을 통해 ‘산안(山顏)’을 ‘대(對)’하고 ‘설령(雪嶺)’을 ‘함(含)’한 뒤로 ‘수(瘦)’하고 ‘한(寒)’하게 되었다. 눈이 쌓인 유산의 ‘한(寒)’ ‘수(瘦)’에 비해 ‘오(吾)’는 더욱 청리하다. ‘청리(淸羸)’는 청수(淸瘦)한 모습이다. 맑은 기운을 가지고 조금은 마른 듯 여위어 있다. 이 여위는 맑은 정신에서 유래한다.

시상은 ‘수(瘦)’와 ‘한(寒)’이 3구의 ‘청리(淸羸)’를 안받침하면서, 4구의 ‘냉담(冷淡)’으로 발전하며 극대화된다. ‘대(對)’가 수평적으로, ‘함(含)’은 액자적으로 시선을 투시하며 나와 산의 거리를 확보해 놓았다. 특히 1,2구는 두보가 <절구(絶句) 4수>에서 “창은 서산의 천년설을 머금었고, 문은 동오로 만 리 떠날 배를 붙이었는데(窓含西嶺千秋雪, 門泊東吳萬里船)”라고 한 것과 닮아 있다. 이황이 거론했듯, ‘두소룡의 절박’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대’와 ‘함’으로 거리를 두고 있던 ‘오(吾)’와 ‘산(山)’ ‘설(雪)’과

4) 『灌圃詩集』, <山陰十二詠>, 楡山對雪.

의 공백은 ‘일상간(日相看)’을 통해서 가까워진다. 현창(軒窓) 안의 나는 청수한 모습으로 냉정하게, 무심하게 날마다 산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점 점 산빛을 닮아가는 것이리라. 비록 ‘상(相)’자 역시 ‘오’와 ‘산’ ‘설’ 사이의 관계를 엮는 허사이겠지만, ‘산’ ‘설’도 또한 ‘오’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서로 바라보며 서로를 닮아가, 끝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어득강은 눈덮힌 산에서 맑고 깨끗한 정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시가 하나 있다. 바로 ‘동주도원(東州道院)’을 두고 노래한 시의 제3수이다. 그 시를 들어본다.

산음 서원에서 한가롭던 시절 떠올려보니
 시 읊조릴 때면 날마다 유산을 마주하였지.
 학봉은 어인 일도 또 청수한가
 도처에 집 삼는 산빛이 내 얼굴 닮았네.
 憶在山陰書院閑 吟頭日日對榆山
 鶴峰何事亦清瘦 到處家山似我顏⁵⁾

‘유산(榆山)’은 산음현 남쪽 10리에 있는 산이고, ‘학봉(鶴峰)’은 홍해에 있는 산이름이다. 홍해에서 시를 지으면서 산음 시절 유산을 마주하였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서 유산을 ‘청리(淸羸)’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학봉을 ‘청수(淸瘦)’하다고 말한다. 1524년(중종19, 55세) 어득강은 홍해 군수로 나갔다. 그해 세자시강원의 필선, 군기시 부정, 병조 참지가 되었지만, 외직으로 ‘펼직’되어 나가게 된 것이다. 허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의 세계를 발견한다. 그것이 ‘도원(道院)’이다.(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도원에서 그는 또 하나의 산빛을 발견하고, 그 산빛과 자

5) 『灌圃詩集』, <東州道院十六絶>, 第3首.

신이 닮아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산빛이 ‘사아안(似我顏)’하다는 것이다. 앞서 산음에서는 여원(瘦) 산빛을 보고 있었지만, 오늘 홍해에서는 그 산빛이 내 낮빛을 닮아 청수하다는 것이다. 산빛과 닮은 나를 확인하고, 또 나와 닮은 산빛을 확인하고 있다. 그와 ‘산’이 그 대로 하나가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바라본 산빛이 별개가 아니라 ‘청수’한 풍격을 갖는 의상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점도 주의를 끈다. 그에게 청수한 산빛은 ‘지역의 차이’를 불문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의 의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청수’는 본래 창백한 느낌을 갖고 있다. 흡사 차가운 이성을 가진 냉정한 지식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풍채 좋고 여유로운 호기(豪氣)와는 다소 동떨어진 기운이 느껴진다. 이처럼 내부가 외부에 흔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한편으로 조화로운 세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과도 통한다. 청수한 산빛을 닮은 그는 자연의 평화와 질서를 그대로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가 일흔을 넘긴 나이에 쓴 시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오직 우리 배 위의 금을 타도록 할 뿐
 여인들더러 호수 안을 굽어보게 하지 말라.
 다만 시름하노니 모래밭 새들 놀라 일어나고
 머리 내민 물고기 다시 깊이 들어가면 어쩔꼬.
 但使彈吾船上琴 休教粉黛俯湖心
 只愁驚起沙汀鳥 闖水游魚更入深⁶⁾

어득강은 나이 70세에 밀양부사를 지냈다. 끊임없이 조정에서는 원로

6) 『灌圃詩集』, <書冥鴻亭湖船> 第1首.

로서 대우받아 서용되었다가 체직되는 일을 반복하던 차였다. 이 시의 원주에 “나이 일흔을 넘기면서 작년부터 시를 짓지 않았었다. 명홍정 주인이 시 지으라는 독촉이 심하여 억지로 몇 수를 지어서 전에 먹었던 마음을 어겼다(年過七十, 自前年不作詩, 冥鴻主人索題甚苛, 強作數首敗盟)”라고 하였다. ‘명홍정(冥鴻亭)’ 주인은 조운손(曹潤孫)이다. 조운손은 창녕 사람으로 1502년 무과에 급제하여 갑산부사, 평안도 병마절도사, 병조판서 등을 지낸 인물이다.

시 내용은 다소 유머스럽다.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는데, 배 안에 분대(粉黛), 즉 여인들을 함께 태웠다. 그런데 관포는 그들에게 금(琴)을 연주하도록 시킬 뿐, 호수 안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한다. 그 이유는 ‘사정조(沙汀鳥)’와 ‘유어(游魚)’가 ‘경기(驚起)’할까봐 였다. 비록 배를 타고는 있지만 호수 안의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다. 산빛을 닮아 청수했던 어득강은,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자신 역시 외계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갈구한다. 한가롭게 지내고픈 소박한 바람을 해학적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제목의 제2수는 그 마음이 지향하는 정신경계가 제시된다. 그 시를 들어본다.

낭묘에서 어이 눈 아픈 근심 견디랴

일흔 되자 그에 한가롭게 지내노라.

조복이며 흙이며 어대를 돌려주고

맑은 못과 백구를 바꿔 얻었다오.

廊廟何堪蒿目憂 稀年始可事優游

脫還袍笏兼魚袋 換得澄潭與白鷗

‘호목우(蒿目憂)’와 ‘사우유(事優游)’로 대비되는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어득강은 후자를 취하고 있다. 만년의 선택이지만 아직은 벼슬살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떨어지는 점이 없지는 않다. 어쩌면 상투적인 술회에 그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3,4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포홀(袍笏)’과 ‘어대(魚袋)’는 벼슬을 상징한다. ‘포홀’은 조복과 홀을, ‘어대’는 5품 이상에게 주는 ‘어부(魚符)’를 담은 주머니이다. 이들을 벗어 돌려 주고⁷⁾ ‘징담(澄潭)’과 ‘백구(白鷗)’를 얻었다고 했다. ‘백구’는 연하락을 표상하는 새이다. 흔히 ‘백구맹(白鷗盟)’으로 시가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벼슬살이한다는 공식적인 증표로서, 훗날 왕의 앞에서 자기 직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물건인 홀에는 왕사(王事)의 엄숙함과 공적인 일의 지엄함이 담겨있고, 관리로서의 책임감도 배어있다. 그런데 이 홀을 대하는 어득강의 태도가 해학적이다.

문서처리하고 틈이 나 홀로 누관에 올랐을 때
술 깨어 읊조리다 나도 모르게 홀을 괴었네.
주위 집들은 무퇴하게도 높아서
서산의 상쾌한 기운 반쯤 이지러졌네.
簿領餘閑獨上時 醒吟不覺笏支頤
旁邊院宇高無賴 爽氣西山一半虧⁸⁾

어득강은 바쁜 정사를 틈타 술을 마셨고, 술이 깨면서 시를 읊조리면서 틈을 괴었다. 그런데 그 틈에 고인 것이 바로 홀이었던 것, 그렇다고 다시 자세를 곧추 잡아 홀을 갈무리하지 않는다. 그 광경이 참으로 우스꽝스럽

7) <書曹舜卿致虞詩軸>의 “只緣將母今還笏, 大勝懷章昔返鄉”에서 보듯이 ‘還笏’은 ‘返鄉’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득강에겐 ‘반향’을 넘어서 煙霞樂의 지향이 엿보인다.

8) 『灌圃詩集』, <題羅州西清觀> 第3首.

다. ‘주홀(拄笏)’은 왕희지의 고사에 기인하는 바, 비록 술에 기대어서 홀을 몸을 고이는 막대기로 사용하지만 그에게 ‘홀’은 어찌면 벗어버리고픈, 잊어버리고픈 물건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일까? 2구의 자재로운 상황에서 그가 시주(詩酒)에 기대자, ‘상기(爽氣)’가 찾아온다. 높은 누각에서 맞이하는 세상의 상쾌한 기운이 아쉽게도 주위가 높아서 반은 이지러진 채 전해져 온다. 불완전한 상기이긴 하지만, 바로 ‘술 깨어 읊조리다’나도 모르게 홀을 괴었던(醒吟不覺笏支頤) 상황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산빛을 닮았던 어득강은 ‘환홀’을 감행하며 연하락을 추구하고픈 지식인이었다. 그 꿈은 비록 속세의 벼슬을 떠난 적은 없지만, 자신이 벼슬하고 있는 공간을 연하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지방의 수령이 되었을 때 그곳을 하나의 도원으로 삼았다.

3. 세속적 공간의 경계적 재구성: 도원(道院)과 한(閑)

1470년에 태어난 어득강은 1550년 81세로 졸할 때까지 벼슬살이를 그만둔 적은 없었다. 23세 진사시, 27세 문과에 급제한 뒤, 30세 홍문관(弘文館) 정자(正字)를 시작으로, 33세 산음 현감, 39세 영천(永川) 군수, 41세 사헌부 장령, 44세 함안(咸安) 군수, 47세 홍문관 교리, 49세 사간원 헌납, 52세 홍문관 부응교, 교리, 사헌부 장령, 54세 사헌부 집의, 55세 세자시강원 필선, 군기시 부정, 병조참지, 흥해(興海) 군수, 60세 사간원 대사간, 63세 곤양(昆陽) 군수, 64세 대사성, 70세 밀양 부사, 71세 이현보와 함께 재서용(再敍用)의 가납을 받았음(직책은 미확인), 73세 부사과(副司果), 80세 상호군(上護軍)으로 사직하였다. 비록 그는 정승에까지 오르지

는 못했고,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도 늦은 나이까지 벼슬살이를 하였던 것이다. 다만 조정의 직책은 주로 언관에 있다가 탄핵되어 체직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외직 생활이 길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행력은 스스로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다시 이황의 기억에 의지해보면, “나아가서 옥당 금마가 되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굽혀져 하찮은 자리로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희(喜)’도 ‘치(恥)’도 아니었다는 지적은, 벼슬에 집착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을 거론한 것이다. 그래서 어득강은 외직으로 만난 고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다음 시를 보도록 하자.

온나라 산수로 천하에 알려졌으니
하늘이 시선더러 주인노릇 시켰네.
스물 네 고을 모두 도원이라
오히려 속티를 다시 순정하게 하리라.

一邦山水聞天下 天與詩仙作主人
二十四州皆道院 猶將塵垢使還淳⁹⁾

성세창(成世昌, 1481~1548, 호 둔재遯齋)이 강원도 관찰사로 가는 것을 송별한 시이다. 성세창은 김굉필의 문인으로 1522년 약관 42세 나이로 도백이 되었다. 이후 좌의정까지 오른 인물이다. 관포는 성세창을 시선(詩仙)이라고 부르면서,¹⁰⁾ 시선인 그가 관찰사가 되니, 그곳이 모두 도원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그곳은 시선의 감화로 더욱 순정하게 될 것이다. ‘도

9) 『灌圃詩集』, <送成蕃仲世昌按關東> 第2首.

10) 어득강은 자신의 벗들을 ‘詩仙’이니 ‘詩狂’이니 불러주곤 하였다. 산음현감 鄭仁雄의 換鵝亭을 두고 쓴 시 <題道士觀>에서 ‘시광’이라고 불렀었고, 또 知非翁 김세필을 두고 ‘詩人’이라고도 불러준 바 있다.<和寄知非翁四首>

원(道院)은 도를 닦는 집이란 뜻으로 도가적 용어이다. 그러나 관포는 이 용어를 연하(煙霞)와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활용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도원’은 이념적 학문을 닦는 공간이 아니라, 속세와 동떨어진, 소박한 연하의 공간이 된다. ‘도원’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난 경우는 ‘동주도원(東州道院)’에서다. ‘동주’는 흥해를 두고 말한 것인데, 관포는 1524년(중종 19, 55세) 흥해 군수가 되어, 그곳의 풍물을 16수의 칠언절구에 담아놓았다. 그 첫수에 흥해를 마주한 심회를 이렇게 밝혀놓았다.

벼슬 그만두고 한참 산속의 정승이었다가
 조서 받고 다시 도관의 신선 되었다오.
 일찌감치 이 고장 백성일 간소한 줄 알았다면
 십년 전에 찾아올 걸 한스러워라.
 休官久作山中相 應詔還爲道觀仙
 早識此邦民事簡 懷章恨不十年前¹¹⁾

‘산중상(山中相)’은 벼슬을 살지 않고 야인으로 지냄을 뜻한다. ‘도관선(道觀仙)’은 도관에서 도를 닦는 사람이란 뜻일 터인데, 그 계기가 ‘응조(應詔)’라는 것이 뜻밖이다. 조명에 응하여 나라의 벼슬을 사는데 ‘도관선’이라니! 이곳의 ‘도관’도 본래 도인들이 신선술을 배우는 집을 뜻하지만, ‘도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앞서 성세창에게 ‘스물 네 고을 모두 도원이라(二十四州皆道院)’고 해준 것과 일맥상통한다. 관포는 자신이 머무는 곳을 ‘도원’으로 여기고, 그 안에 자신을 편안히 놓아두었다. 관포의 시에서 도원은 쉽 없이 나오는 시어이다.

11) 『灌圃詩集』, <東州道院十六絶> 第1首.

일이 한가하면 열흘에 아홉 번 루에 올랐고
물고기와 새를 잊은 지 여섯 해를 지났네.

풍토는 정녕 도원이라 이름할 만하니

산속의 우객(羽客)들도 와서 노니누나.
官閑十日九登樓 魚鳥相忘過六秋
風土可名爲道院 山中羽客亦來遊¹²⁾

동주에 온지도 벌써 네 해라
구름을 따라서 함께 맑게 놀았지.

관청은 도원처럼 한가로와 일이 없고

그저 고향 그리고 한양 생각이라오.
待罪東州已四秋 追隨雲將共清遊
官如道院閑無事 只有思鄉戀闕愁¹³⁾

그런데 위 시를 살펴보면, ‘도원’의 의경은 ‘한(閑)’과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시에서는 ‘관한(官閑)’하여 어조(魚鳥)를 잊을 정도로 망기(忘機)하였음을 말하고 있고, 둘째 시에서도 ‘한무사(閑無事)’하여 ‘운장(雲將)’을 좇으며 청유하였다고 하였다. ‘운장’은 『장자』의 우언 속에 나오는 구름의 주장이다.¹⁴⁾ ‘어조상망(魚鳥相忘)’과 ‘운장청유(雲將清遊)’가 가능했던 것은 고을살이하는 태도가 번잡하지 않고 한가로운 데 있었다. 즉 벼슬이 한갓져서가 아니라, 어둑강 스스로 그 공간을 ‘어조상망’하고 ‘운장청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고을살이는 ‘연하’ 자체가 아니며, 둘은 이른

12) 『灌圃詩集』, <題道士觀> 第2首.
13) 『灌圃詩集』, <和寄聖興> 第1首.
14) 『莊子』, 「·在宥」, “雲將東遊, 過扶搖之枝, 而適遭鴻濛”

바 속세와 자연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공간이다. 어득강 역시 속세를 완전히 떠나거나 초월할 수는 없었다. 당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이들이 속세를 떠날 것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날 이상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득강은 고을살이를 한가롭게 경영하고, 그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려 한다. 동일한 세속적 공간에서 세속을 넘어서는 공간을 희구하였던 것으로, 그 결과 세속적 공간 안에 이상적 삶의 지향을 담아 넣은 경계적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곳이 ‘도원’이다. 실제로 고을살이 하는 영지(領地)인 곳을 도를 닦는 수행공간으로 명명하고, 그 안에서 ‘한’의 정취와 의경을 구현한 것이다. 어득강이 곤양 군수로 있던 시절(중종 27, 1532, 63세), 성 동쪽에 임완정(臨完亭)을 세우고 지은 시에서 “고즈넉한 한가로움을 도원이라 이름할 수 있으니, 나 백발로 수령이 된 것 부끄러워라(可把幽閑名道院, 慚吾白髮作遨頭)”¹⁵⁾라고 한데서도 ‘도원’이란 공간이 추구하는 의경이 ‘한(閑)’에 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흠을 턱에 기대어 시를 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어득강의 모습도 이런 경계적 공간에서야 가능한 풍경일 것이다.

4. 自在로운 자아의 공간 창조, 관포당(灌圃堂)

옛 지식인에게 ‘연하락(煙霞樂)’은 비극적 이상이다. 간절히 소망하나 끝내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들은 항용 입만 떼면 자연과의 합일을 꾀한다고 하고, 강호에서 노닐고 싶다고 하며, 또 선상(船上)에서 그런 자연을 완상하기를 소망한다. 하다못해 자신의 정원에 가산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신선으로 행세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정도에 있어서

15) 『灌圃詩集』, <臨完亭> 第4首.

차이가 난다해도 대부분 상상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가상의 체험이요, 설령 직접 체험한다 하더라도 다시 세속적 현실로의 귀가를 전제로 한 유락일 뿐이다. 벼슬을 살면서도 늘 산수를 그리워하고, 출세를 위해 조정에서 있으면서도 고향의 산천을 그리워하는 게 사실이었다. 이는 지식인의 가식성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앞서 ‘비극적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들의 ‘연하락’은 이뤄지지 않고, 저들은 영원히 꿈만 꿀 뿐이다. 저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따스하며 인간적인 모습의 공간을 꿈꾼다. 허나 그 꿈은 깨어지고, 그들은 여전히 연하와 먼 도심 한 복판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어둡강이 세속적 공간을 ‘도원’으로 재구성하고 호명하고자 하였던 심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즉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고성(高城)의 산을 ‘혼돈(混沌)’이라 명명하고, 그 산자락 시내를 ‘관계(灌溪)’라고 부르며, 그 곁에 ‘관포(灌圃)’라는 채마밭을 마련한 뒤 ‘관암(灌庵)’을 짓고 스스로 혼돈장인(混沌丈人), 관포옹(灌圃翁)으로 불렀다. 더구나 ‘관포’라는 자호는 젊은 시절부터 종년까지 일관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벼슬을 그만둔 뒤 전원으로 회귀하였던 이들과는 구분된다. 그는 일찌감치 강산과 자아가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인 다음 시를 보도록 하자.

호남의 승지를 모두 보고 돌아왔지만
이곳 대관이 참으로 아름다울시고.
호남의 산빛 보면 그림 같거니와
강에 뜨는 것 마다하고 나를 따라오네.

觀盡湖南勝地回 此邦臺館亦佳哉
湖南山色看如畫 不肯浮江逐我來¹⁶⁾

이 시의 원주에 현감 김균(金鈞)이 경오년 무과에서 장원한 사람이라고 붙어있다. 무장 출신의 현감이라서 다스리는 병법에 능하기에 고을살이도 잘 하리라는 기대를 담아놓았다. 이 시에서 어득강은 호남의 산빛에 대하여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결구의 ‘부강(浮江)’과 ‘축아래(逐我來)’는 산빛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임에도, 산빛을 주체로만 들어서 내가 산빛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산빛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부강(浮江)’은 강에 비친 산빛을 말한다. 산빛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물에 담겨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움직이면서 산빛을 바라볼 뿐이다. 그런데 산빛이 물에 비쳐 흐르는 것을 두고,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표현했으나, 기발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시상의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어 나를 산빛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어득강이 산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 산빛은 그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앞서 산빛을 마주하고 있는 어득강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게 산빛은 자신과 하나인 존재였다. 이처럼 자연과의 하나를 노래하던 어득강은 또하나의 공간을 창조한다. 그곳이 ‘관포당’이다.

‘관포당’은 어득강 자신이 최종 거처로 삼은 집이었다. 그 공간을 자체로운 자아가 활발발(活潑發)하게 살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노래한 시가 <관포당(灌圃堂八詠)>이다. 그는 관포당(灌圃堂), 교채헌(咬菜軒), 상우당(尙友堂), 송궁문(送窮門), 세연지(洗硯池), 종과원(種菓園), 매죽오(梅竹塢), 연국당(蓮菊塘) 등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세부공간마다 시 한 수씩 지어놓았는데, 각 수마다 주제도 새롭지만, 여덟 수가 엮여지며 하나의 시상을 구성하기도 한다.

16) 『灌圃詩集』, <題河東竹亭> 第4首.

관포당

무단히 두 개의 물줄기를 끌어 문 앞에 흘리고
 동산과 울타리, 그리고 논밭에도 물을 대었네.
 팔팔 흘러 일찍이 가뭄 걱정하지 않았거니
 가난한 집 길이 풍년을 누리도다.

武貪兩水聒門前 灌得園籬及稻田
 混混不曾憂大旱 貧家長得享豐年¹⁷⁾

물을 두 줄기 끌어다 문 앞을 흐르도록 하고, 그 물이 흘러 동산과 울타리, 밭까지 이어지도록 하였다. 1구의 ‘탐(貪)’은 사실 탐욕이 아니라 찾는다는 뜻이다. 그 물을 찾아서 ‘팔문전(聒門前)’한 이유는 집안에서 물소리만 들리도록 하여 집밖과 경계를 두기 위해서인 듯하다. 세상의 시비소리가 싫어서 독서당 주위로 물을 돌렸다는 최치원의 안배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양수(兩水)’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이자 동산의 채마나 밭작물이 자라도록 해주는 생명 근원이다.

교채헌

교채당 안에 햇벌이 서러있고
 가락이 절로 치아 사이에서 나오네.
 그저 온갖 일로 하기 어렵다 불평할 뿐
 세상에 박자 두드리며 보는 이 없네.

咬菜堂中日照盤 宮商自出齒牙間
 只緣百事病難做 世上無人擊節看¹⁸⁾

17) 『灌圃詩集』, <灌圃堂八詠> 第1首 ‘灌圃堂’.

18) 『灌圃詩集』, <灌圃堂八詠> 第2首 ‘咬菜軒’.

‘가락이 절로 치아 사이에서 나오네(宮商自出齒牙間)’, 입으로 씹어 먹는 데서 가락을 들을 수 있다는 발상이 참신하다. 4구의 ‘격절(擊節)’은 박자를 맞추거나 장단을 맞춰주는 일이다. 시인은 어떻게 먹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리저리 다른 일로 핑계를 대면서 가락이 나도록 흥겹고 절주 있게 먹는 행위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이요,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도 조섭(調攝)의 기본이다.

상우당

집은 비록 가난해도 책은 부자라
손이 오면 오직 이것을 늘어놓지.

뉘라서 알랴, 일개 동한의 선비가

위로 황조 이상의 현인과 벗한 것을.

家則雖貧書則富

客來唯用此陳編

誰知一箇東韓士

上友皇朝以上賢¹⁹⁾

제1수 4구의 ‘빈가(貧家)’를 이어받아 시상을 전개시켰다. 살림살이는 가난해도 책은 넉넉하여, 책을 통하여 옛 현인들을 배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관포에게 ‘책’은 남다른 기억들과 연결된다. 그는 1510년(중종5, 41세) 사헌부 장령으로 있을 때 서사(書肆)의 설치를 주장했었고, 다시 1522년(중종17, 53세) 다시 사헌부 장령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서사(書肆)의 설치를 제기했으며, 1542년(중종 37, 73세) 부사과(副司果)로 상소를 할 때에도 서사설치를 올렸었다. 서사를 통한 책의 소통과 지식의 전파, 유생들의 학업 신장 등을 꾀했던 것이다. 벼슬살이 내내 언관으로 제기한 일은 실록에서도 보기 드문 예이다. 소일거리를 넘어선 지식의 축적

19) 『灌圃詩集』, <灌圃堂八詠> 第3首 ‘尙友堂’.

과 소통은 일개 동한의 지식인이 황조의 옛 선인들과 대화하는(友) 이유였다.

세연지

맑고 알아 성근 그림자 비길 만하고
 그윽한 집에서 글씨 쓰니 눈 더욱 밝아라.
 아침마다 벼루 씻으면 몹시 살벌해지지만
 먹빛 빠지고 봄이 오면 미나리도 자란다오.

清淺可容疏影橫 幽軒臨帖眼增明
 朝朝洗硯殺風景 緇盡春來蘸水英²⁰⁾

제5수이다. ‘소영(疏影)’은 수풀이나 꽃그림자를 뜻한다. ‘횡(橫)’은 나부끼듯 기우듬히 비치는 모양이다. ‘청천(淸淺)’의 안온함과 ‘유현(幽軒)’의 고즈넉함이 문득 ‘세연(洗硯)’을 통해 조화가 무너진다. 그래서 ‘살풍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먹물빛이 다하고 봄이 오면 탁한 물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진 미나리가 자랄 수 있다고 하였다. 벼루를 씻는 못이니 작은 물이 담겨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 안에 소영을 담아낼 수 있다 했으니, 방춘의 마음에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것과 같다. 본래 미나리는 논두렁 같이 흐린 물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지만, 관포의 삶의 일상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듯하여 미소가 지어진다. 팔영 가운데 한 수만 더 보기로 한다.

매죽오

매화는 형이 되고, 대는 동생되어
 단에 올라 종이 세한의 맹서를 맺었네.

20) 『灌圃詩集』, <灌圃堂八詠> 第5首 ‘洗硯池’.

시수가 불쑥 끼어 읊조려도 꺼리지 않고
 냉담하게 서로 한편생을 보노라.
 木母爲兄竹爲弟 登壇好結歲寒盟
 不妨添得吟詩叟 冷淡相看了一生²¹⁾

매화와 대를 심어놓은 작은 언덕을 표현했다. 이들을 의인화하여 ‘세한맹(歲寒盟)’을 맺었노라 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그래서 3구에서 어김없이 ‘시수(詩叟)’가 등장한다. 시인 자신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매화와 대는 서로 무심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세한맹을 지키면서. 이 시는 연꽃과 국화를 함께 심어놓은 방당(方塘) (“方塘一鏡落堦前，隱逸花中君子蓮”)²²⁾과 함께 시인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 유자들이 향유 거론하는 매화, 대, 연꽃, 국화 등이긴 하지만, 시인은 이를 자신의 자재로운 공간의 지향처로서 안배하고 있는 것이다.

<관포당팔영>은 정치하게 조직된 연작시는 아니지만, 아주 무관하게 벌려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제1수에서 관포당의 수리(水利)와 구성을 보여주고, 제2수(<교채현>)에서 음식 먹는 것과 가락(청각)을 통해 ‘나’를 등장시키며, 제3수(<상우당>)에서 내가 세상과 만나는 방법, 독서를 들고, 제4수(<송궁문>)에서 살림은 가난하나 운산(雲山)을 안게 된 넉넉함을 보여주고, 제5수(<세연지>)에서 그 운산을 담아내었던 연지가 미나리를 키울 수 있음을 표현하고, 제6수(<종과원>)에서 아예 과수를 심은 뜰로 살림을 암시하며, 나아가 제7수(<매죽오>)와 제8수(<연국당>)에서 삶의 지향을 밝혀서, 관포당의 삶이 끝내 군자다운 삶을 이루기

21) 『灌圃詩集』, <灌圃堂八詠> 第7首 ‘梅竹塢’.

22) 『灌圃詩集』, <灌圃堂八詠> 第8首 ‘蓮菊塘’.

위한 포국(布局)임을 표현하고 있다. 내용이 조금씩 맞물리면서 하나의 시상처럼 이어진 셈이다.

이 관포당은 ‘혼돈산(混沌山)’ 자락에 있다. 본시 대둔산인 것을 ‘혼돈산’으로 호명하고 자신마저 혼돈장인이라고 자칭하였다. 앞서 거론했듯, 『장자』의 혼돈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실 혼돈이 베푼 선의에 세상 또한 선의로 보답하여 구멍을 뚫어준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혼돈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혼돈의 생리와 상관없는, 세상의 잣대의 소산이었기 때문이다. 관포가 ‘혼돈’으로 자처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상의 치란과 호명에 흔들리지 않는 주체의 강한 자의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혼돈산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자신만의 자재로운 공간을 조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면서-남은 과제들

공간은 간단히 물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욕망과 탈주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어둑강은 세속적 현실을 떠나 살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인간이란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영원한 로망이 아닐까 싶다. 거룩한 신념으로 종교적 수행을 하는 이들조차 세속적 욕망의 번뇌를 끊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목표가 아니던가. 이즈음에서 다시 이황이 어둑강을 두고 평가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속에 벗어난 인품을 가지면서 난세에도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치세에도 출세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나아가서 욕망 금마가 되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곱혀져 하찮은 자리로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음의 망기와 동방삭의 해학에다 자연을 즐기는 습관으로 그 즐거움을 누렸

니,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²³⁾

실제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치란(治亂)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주체, 세속적 욕망의 실현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항상성! 이황이 파악한 어득강의 사람됨은 ‘나’를 곧추세워서 외부의 자극에 힘겨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어득강의 비결로, 망기(忘機)와 해학(諧謔), 연하락(煙霞樂)이었다. 망기로 세속적 명리로 향하는 욕망을 끊고, 해학으로 따스한 인간애를 유지하며, 연하락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던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어득강의 시적 공간에서 서로 착종하며 나타나며 그의 시세계를 구성한다. 산빛을 만나고 흙을 괴는 순간이든, ‘도원’을 재구성하든, ‘관포당’을 창조하든, 언제 어디서나 잠재적으로든 돌출적으로든 배어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득강에 대한 이황의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다.

한편, 관포의 공간으로 거론되었어야 하는 것이 ‘사찰’이었다. 사찰은 그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수학(修學)의 공간으로, 다른 하나는 심아(尋我)의 공간이었다. 전자는 향교 제생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었던 데에서 기인하며, 후자는 본래 비각 찾았던 길에 속티를 멀리하라는 충고를 받는 데서 기인한다. 그렇다고 사찰에 귀의하거나 그곳에서 생활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계기적 공간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 부분은 뒷날 그의 교육관(그는 조정에서 학생들의 강경(講經)과 학업에 대한 건의를 수차례 한 바 있다.)과 함께 주제적 국면의 분석 자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고능려(奇古凌厲) 호건돈좌(豪健頓挫)’라는 풍격과 관련하

23) 『灌圃集』, 跋, “生有拔俗之標, 亂不全退, 治不求進, 進之以玉堂金馬非喜也; 屈之以主縣米鹽非恥也. 漢陰之忘機, 東方之談諧, 有山水煙霞之癖, 而從享其樂, 其爲人何如耶?”

여 실제 작품을 검증하는 것도 요구된다. 후고를 기약해본다.

끝으로 이황과 어득강과의 만남에 대한 『퇴계집』의 기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1532년 겨울, 당시 곤양 군수로 재직하고 있던 어득강(당시 63세)이 이황에게 편지를 보내 계사년(1533년, 이황 33세)에 지리산 쌍계사를 유람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였다. 그래서 이황은 그 이듬해 1월 29일부터 예안 집을 떠나 남행(경상남도 여행)길에 오른다. 의령, 함안, 창원, 마산, 진주, 곤양(지금의 사천시 곤양면) 등지를 여행하였다. 그해 3월 28일, 곤양 객관에 묵었는데, 그때 어득강이 흥해 군수로 있을 적에 지었던 <동주도원 절구16수(東州道院十六絶)>을 보여주며 차운하라고 하여, 그 시에 차운한 시 <곤양에서 어관포의 ‘동주도원 절구 16수’에 차운하다(昆陽次魚灌圃東州道院十六絶)>를 지었다.²⁵⁾ 이황은 어득강을 모시고 곤양군 남산에 올라 바다를 구경하였고, 작도(鵲島)에서 놀며 조수의 이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예안 집에서 온 편지를 받고 이황은 지리산 쌍계사 여행은 취소한 채 고향 예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본래 목표로 했던 곳은 결국 가지 못했던 것이다. 어득강은 완사계(浣沙溪, 지금의 사천 덕천강德川江)에서 전별해주었다. 그후로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했다. 뒷날 이황 나이 58세에 경상도 관찰사였던 오겸(吳謙, 자 경부敬夫, 호 지족암知足庵, 1496~1582)이 어득강의 시집을 간행하려고

24) 이 내용은 정석태 선생의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1(퇴계학연구원)에 기대어 정리한 것이다.

25) <東州道院十六絶>에 대한 차운시는, 이황 이외에도 金世弼(1473~1533)의 <和魚子游東州道院十五首>(『十清軒集』 권2), 金克成(1475~1540)의 <東州道院十六絶, 贈灌圃>(『金先生憂亭集』 권1), 金安國(1478~1543)의 <次興海魚使君子游東州道院十六絶韻>(『慕齋先生集』 권5), 金安老(1481~1537)의 <次韻灌圃堂東州道院十六絶>(『希樂堂文稿』 권2상), 李荇(1478~1534)의 <次魚子游東州道院韻>(『容齋先生集』 권1) 등이 있다. 당대 ‘東州道院’ 열풍이라도 말할 정도로 화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어득강의 위치를 짐작하게 해준다.

초고를 보내와 글을 산정해주고, 발문도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이황은 어득강의 시집을 편찬한 뒤 발문까지 지어 보냈다. 이렇게 보면, 어득강의 시집은 이황이 직접 편찬을 잡아준 특별한 서물(書物)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황은 이 시집의 간행은 사람의 책임이라고까지 강조하였었다. 책의 편집은 물론 발문에 간행까지 자임한 경우는, 이황의 행력에도 무척 보기 드문 예가 아닐 수 없다. 어득강의 지성사적 위치가 한 걸 궁금해진다. 그의 시는 오언절구 4제, 칠언절구 158제, 오언율시 23제, 칠언율시 24제로 500여수가 넘는다. 본고는 그 편린만 엿보았을 뿐이다. 차후로 어득강의 시 전체를 조망할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져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金克成, 『金先生憂亭集』.

金世弼, 『十淸軒集』.

金安國, 『慕齋先生集』.

金安老, 『希樂堂文稿』.

魚得江, 『灌圃詩集』.

李苻, 『容齋先生集』.

李滉, 『退溪集』.

『국역 咸從世稿』.

정석태,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퇴계학연구소, 2001.

최석기, 『관포집 해제』, 『남명학연구』6,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6.

최재남, 『어득강의 쌍계팔영과 그 차운시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1, 경남지역문학회, 1997.

최재남, 『어득강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일고』, 『한국한시연구』11,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Kwan-Po Eo Deuk Kang' Poems

Kim, Seung-Ryong

This thesis is studied about the Chinese poetry written by Kwan-Po(灌圃) Eo Deuk Kang(魚得江), especially remarked its space revealing the sense of self. Yi Hwang indicated that his humanity was selfless, humorous, and he loved nature. Also He stated that his poem was pure without any secular dirt. Besides, he published his poems and he is responsible for that. In fact, Eo Deuk Kang was innocent intellectual who is as like as mountain color. He retured his holl(笏) which symbolized a government post and tried to take pleasure which is in accord with the nature. However, he couldn't escape from earthly existence, he compromised his ideal space 'Down' in mundane world. Down is peaceful space where secular and unworldly desires are mixed up. Furthermore, Eo Deuk Kang created an space of freedom from desire by using 'Kwan-Po-Dang(灌圃堂)' In this place, He tried to get undisturbed main agent. From now on, It is a task that examine Eo Deuk Kang's overall chinese poetry and identify his aesthetic features.

Key Words Kwan-Po(灌圃), Eo Deuk Kang(魚得江), Down(道院), Kwan-Po-Dang(灌圃堂)

논문투고일	: 2012. 04. 20
심사완료일	: 2012. 05. 22
게재확정일	: 2012. 06. 05